

주문 한 건당 1만원… 일상회복에도 배달원 몸값 ‘천정부지’

퀵커머스 진출하는 유통기업 증가 경쟁사 우위 위해 배달료 출혈경쟁 날씨·시간 등 상황별 추가 운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에 주요 배달 앱의 이용자 수가 눈에 띄게 줄었으나 반대로 배달원들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앞서 퀵커머스 사업에 출사표를 던진 유통기업들에게 배달료는 경쟁과열과 정부 규제에 이어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10일 라이더유니온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이더보호법과 안전운임제 제정을 촉구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과적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노동자에게 일정한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배달·택배 노동자에 적용하면 속도경쟁에 따른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 중이다.

배달원들은 안전운임제를 요구 중이지만 최근 퀵커머스 사업에 유통기업들이 대대적으로 뛰어들면서 배달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배달비는 업주와 소비자가 함께 부담하는데 대표적인 퀵커머스 플랫폼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 쿠팡이 5000~6000원 정도로 산정하고 있다.



서울 시내에서 배달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통계청이 10월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편을 보면 배달원은 42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만3000명늘었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뉴스

업을 꾸렸다. 대형마트 규제, 편의점 자체 출점 제한 규약, 이커머스로 빠르게 전환한 소비 방식에 대응할 방법으로 퀵커머스를 선택했다. 국내 퀵커머스 거래액은 지난해 기준 약 3000억원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음식 배달 시장은 17조원 규모다. 이커머스 시장이 161조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신생사업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앞서 쿠팡의 새벽배송을 경험한 소비자들이 당일배송 등을 기준으로 이커머스 플랫폼을 선택하게 된 것처럼 퀵커머스도 주요 배송 방식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GS리테일은 지난 6월 편의점과 슈퍼 인프라를 바탕으로 퀵커머스 사업 ‘우동마트’를 시작했다. 4월 메쉬코리아 지분 19.53%를 인수한 데 이어 요기요를 8000억원에 사들이는 등 공격적인 투자를 벌였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올해 초부터 ‘1시간 즉시배송’을, 이마트 애브리데이는 8월부터 ‘스피드 e장보기’를 시범운영 중이다. 이들은 모두 배달원 직고용이 아닌 건당 배달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배달원을 쓰고 있다.

이미 업계에 진출한 배달의민족(B마트)과 쿠팡이 쿠팡은 퀴커머스 성공에 주요한 열쇠인 배달원 확보를 위해 그

야말로 전쟁 중이다. 쿠팡이 쿠팡은 지난 달 한 달 가량 ‘슈퍼워크’를 진행해 배달원들의 몸값을 최대 3~4배까지 올렸다. 지난 달 10일에는 서울 중구와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등 일부 강북권 지역의 건당 배달료가 5000원에서 최대 2만7000원까지 제시됐다. 배달의민족은 8월 주문건수 1억건을 돌파했지만 2019년부터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단건 배달에 배달원 확보를 위해 무리한 프로모션을 계속 진행한 까닭이다.

그러나 GS리테일 또한 직고용 형태가 아닌 매달 중간 플랫폼을 이용한 건당 배달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배달원을 쓰고 있다. 다른 퀵커머스 사업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오아시스마켓, 우아한 형제들(B마트), 쿠팡(쿠팡이 쿠팡) 모두 배달료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다.

퀵커머스 사업을 이미 시행 중인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가장 빨리 퀵커머스 시장을 선점한 쿠팡이 그러했듯 시장 전체를 가져갈 가능성이 큰데, 라이더 직고용 문제는 사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며 “라이더들은 자신이 일한 만큼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기 때문에 직고용을 한다면 이를 감안해야 하는데 제시하는 급여가 어떻든 결국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털어 놓았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CES 2022

삼성전자, 혁신상 ‘싹쓸이’… 43개 제품 선정

TV 11년 연속 최고혁신상 반도체 등 기술 리더십 확인

삼성전자가 이번에도 CES 혁신상을 훙쳤다.

삼성전자는 내년 1월 미국서 열리는 ‘CES2022’에 앞서 진행된 CES 혁신상 수상 발표에서 43개 제품이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부문별로는 영상디스플레이 21개, 생활가전 7개, 모바일 11개, 반도체 4개다. 특히 업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 또는 기술에 수여하는 최고혁신상은 영상디스플레이에서 3개, 모바일에서 1개를 각각 차지하며 기술 리더십을 확인했다.

삼성전자 TV는 11년 연속 최고혁



최고 혁신상을 받은 갤럭시 Z플립3 비스포크 에디션

/뉴스

최고 혁신상을 받았던 갤럭시 Z 플립3 제품과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TV 플랫폼 및 게이밍 모니터가 주인공. 오디세이 G9 게이밍 모니터도 혁신상에 이름을 올렸다.

갤럭시Z플립3 비스포크 에디션도

최고 혁신상을 받으며 폴더블폰 혁신과 대중화 가능성을 확인했다. 갤럭시 Z플립3와 갤럭시 북 프로360, 갤럭시 워치4와 갤럭시 버즈2 및 스마트 태그+ 등 제품 역시 혁신을 인정받았다.

생활가전 부문에서도 패밀리허브 냉장고가 2016년 이후 7년 연속으로 혁신상에 올랐고, 그 밖에도 비스포크 가전과 스마트홈 관련 제품들이 혁신상을 받았다.

아울러 반도체 부문에서도 512GB DDR5 RDIMM D램과 ZNS NVMe SSD ‘PM1731a’, PCIe Gen5 기반 S SD ‘PM1743’과 2억화소 모바일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HP1’ 등 혁신상에 선정되며 반도체 ‘초격차’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김재웅 기자 juk@



LG 올레드 TV

신상에 포함됐다. LG 퓨리케어360° 공기청정기 펫과 LG 원탁 등 차별화된 기술력을 앞세운 새로운 전략 제품들도 혁신상에 이름을 올렸다.

/김재웅 기자

‘LG 올레드 TV’ 10년 연속 혁신상

LG전자 24개 혁신상 수상

LG 올레드 TV가 10년 연속 CES 혁신상을 받게 됐다.

LG전자는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CTA)로부터 CES2022를 앞두고 CES 혁신상 24개를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표 모델은 올레드 TV다. 2013년 이후 연속으로 10번째 혁신상 영예를

안았다. 게이밍과 영상디스플레이, 영상 및 화질처리 등 3개 부문 6개 상을 수상했다.

디오스 얼음정수기 오브제 컬렉션도 함께 했다. 크래프트 아이스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전문가가 엄선한 조화로운 색상을 인테리어 품격을 높일 수 있다.

신개념 식물생활가전 LG 트윈도 혁

한종희, 내년 CES 기조연설 맡아

〈삼성전자 사장〉

강력한 연결성 강조 예정



대’를 주제로 ‘기술은 인류와 지구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가치를 위한 삼성전자의 활동과 함께, 각자 기후변화를 최소화하는데 동참 애달라고 강조하기로 했다.

CES를 주관하는 게리 사피로 CT A 대표는 “기술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연결하는 것”이라며 “한종희 사장의 기조연설을 통해 삼성전자의 혁신 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비전을 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SK이노, ‘NCM9 배터리’ 혁신상 수상

SK이노베이션이 내년 1월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기술 박람회 ‘CES 2022’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 부문 SK온의 ‘NCM9 배터리’가 CES 2022의 혁신상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NCM9 배터리는 니켈, 코발트, 망간 중 니켈 비중이 약 90%에 달하는 배터리다.

SK온의 NCM9 배터리는 CES를 주최하는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CTA)가 10일(현지시간) 발표한 CES 2022 혁신상 ‘차량 엔터테인먼트 및 안전’ 분야와 ‘내장기술’ 분야를 수상했다. 이 배터리는 내년 출시되는 포드(FORD)의 픽업트럭 ‘F-150’의 첫 전기차 버전인 ‘F-150 라이트닝’에 탑재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